

2023 5·18문학상 소설 부문 신인상 심사평

2023년 5·18문학상 소설부분에 총 91편이 응모했다. 심사기준은 첫째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에 부합 하는가 둘째 소설의 내용과 형식면에서 기본적인 완결성을 갖추었는가 셋째 기존의 5·18문학의 범주를 뛰어넘는 신선함이 있는가 등이었다. 두 심사위원은 공통된 기준 안에서 각자 세 작품씩을 선별했다. 하지만 그 기준에 적합한 작품을 찾기가 쉽지 않았음을 고백한다. 그만큼 5·18민주화운동의 작품화가 녹녹치 않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응모작은 리얼리즘과 환상성으로 분리되는 모양새였다. 리얼리즘 계열의 작품은 기존의 5·18문학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고, 환상성을 끌어들이 작품들은 나름 신선했지만 환상성을 통해서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승화시키는 면에서 충분한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우선 예심작품으로 「기억을 기억하다」 「황금동 소냐와 녀마주이 라씨」 「경찰과 영웅」 「용서, 내 몫이 아니다」 「농담」 「무지개」를 가려냈고, 본심 작품으로 「용서, 내 몫이 아니다」. 「기억을 기억하다」 「무지개」를 선정했다. 「용서, 내 몫이 아니다」는 선악의 대물림 구조로 다소 형식과 내용이 단순했고, 「기억을 기억하다」는 완성도가 높았지만 불륜이라는 내용의 위험성을 극복하지 못했고, 「무지개」는 서사능력이 뛰어났지만 후반부가 상투적이었다.

두 심사위원은 최종 심사 논의 끝에 「용서, 내 몫이 아니다」를 당선작으로 올리는데 합의를 보았다. 여타 작품들에서 보여지는 사건의 다양성과 신선함을 높이 샀지만 「용서, 내 몫이 아니다」의 안정성을 넘어서지 못했다. 모든 응모자들에게 감사와 응원을 보낸다. 앞으로도 5·18문학에 대한 꾸준한 애정을 바란다. 어떤 시대의 의미 있는 역사성에 매진한다는 것은 작가 개인의 의식에도 그만큼 의미 있는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된다.

2023년 4월 25일

2023 5·18문학상 신인상 소설 심사위원

손병현 / 은미희